

함평군민 76.2% “앞으로도 살기좋은 함평에 쫓 머물고 싶다”

함평군, 민선 7기 만족도 조사 군민 76.6% '만족'

창구·전화응대 친절성·민원처리 신속성 등 높은 평가
체육·건강 시설, 문화 공간, 안전·사회복지도 만족 ↑
“인내 가지고 군정 운영 좋은결과...발전 위해 노력”

함평군민 10명 중 7명이 민선 7기 군정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7월 15일부터 약 보름간 정책과제 연구기관인 한국경제평가연구원을 통해 지역주민 1천 명을 대상으로 군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군민 76.6%가 '만족한다'고 답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지난 2017년 실시한 군정 만족도 결과(만족 68.2%)와 비교했을 때, 불과 2년 새 8.4%가량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내 눈길을 끌었다.

함평군 정기분 재산세 22억 부과

함평군은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3만9천406건, 22억5천700만원을 일제히 부과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등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우세로,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9월분은 토지와 주택분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연세액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만 부과됐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22억4천600만원, 주택 1천100만원 등 총 22억5천700만원이다.

지난해 18억 2천만원보다 약 4억여원(23%) 증가했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 가입자 중 지난 8월까지 간편 결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도 전자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9월 30일) 재산세 미납 시에는 가산세 3%가 부과된다.

/함평=박동주 기자 df3141@



나윤수 함평군수. /함평군 제공

도 66.6점 등 평균 70점의 준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주환경 및 안전 분야에서도 수산물 공급 및 서비스 수준, 하수도처리 및 하수처리 기반시설 만족도 등에서 80점을 상회했으며, 사회복지분야와 농·축산 지원 분야 역시 82.8점과 73점을 각각 기록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함평군이 문화관광분야에서 앞으로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나비역

스포 개최가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포관광지 개발 사업이 24.1%로 뒤를 이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점 지원 분야와 인구유입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 밖에 향후 함평군 거주 의향을 묻는 물음에는 군민 76.2%가 긍정 답변을 내렸으며, 함평 발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군민 56.8%(부정 6.9%)가 긍정 답변을 했다.

특히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도시가 29.9%, 첨단농업도시가 21.85%를 기록해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술농업도시가 군민이 가장 바라는 지역 미래상으로 분석됐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견실한 군정 운영을 해온 점을 군민들께서 좋게 봐주신 것 같다”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좋은 점은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 차근차근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박동주 기자 df3141@



장성미래농업대학 먹거리유통학과 교육생들이 지역특화품목 개발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 구축을 위해 선진 농업현장을 찾았다. /장성군 제공

장성 “미래농업의 길, 현장서 찾는다”

장성미래농업대학 먹거리유통학과, 농업 선진지 견학

장성미래농업대학 먹거리유통학과 교육생들이 지역특화품목 개발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 구축을 위해 선진 농업현장을 찾았다.

교육생들은 지난달 27일 친환경 유기농 식품을 생산·판매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드는 '구례 자연드림 파크', 6차 산업 우수사례 '지리산피 아골식품'과 '삼촌 썬부쟁이' 등 선진지 3곳을 방문했다.

지리산피아골식품은 전남 구례군 지리산 국립공원 내 위치해 있으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전통장류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곳이다.

먹거리유통학과 교육생들은 이날 냄새 없는 청국장, 고추장 만들기 체험과 김미선 대표의 성공사례 강연을 들었다.

또 교육생들은 구례군 지역특화작

물인 썬부쟁이 나무를 이용해 체험과 식음을 즐길 수 있는 '삼촌 썬부쟁이'를 방문해, 지역특화품목 발굴과 6차 산업 현장을 직접 견학하고 장성의 지역특화 먹거리를 이용한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장성군은 푸드플랜 구축사업과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 증대를 반영해 올해 처음으로 장성미래농업대학 '먹거리유통학과'를 개설해 운영 중에 있다.

먹거리유통학과에서는 지역먹거리 로컬순환시스템의 이해 도모하고 마케팅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매주 4시간씩 총 23회에 걸쳐 전문가의 이론 교육과 현장중심의 실습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장성=윤규진 기자 jin2001@

함평군, 서울서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성황



함평군은 2019년 추석맞이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난10일까지 서울시 관악구, 인천시 남동구 등에서 함평군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열었다. 추석을 앞두고 도농간 우호증진과 지역상생을 위해 서울 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서울장터에 참석했으며, 자매도시인 서울 강북구청, 강남구청 등에서 열린 다양한 추석맞이 직거래행사에도 함평축협을 포함한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 판매업체가 참석하여 약 7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함평군 제공

나주,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성료

나주시(시장강인규)는 이번 달 치매극복의 날을 기념해, 지난 17일 중부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9월 21일로 지정된 치매극복의 날은 지난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지역사회 치매환자 돌봄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기념행사는 '기억해요, 오늘! 오늘이 남

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을 주제로 △치매 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영상 상영 △치매환자 가족 편지 낭독 △유공자 표창 △치매 파트너 발대식 및 치매 극복 퍼포먼스(동신대학교) 등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치매 예방 전문상담을 비롯해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각종 전시·체험 운영을 통해 치매 걱정 없는 나주시를 만들기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을 제공,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도왔다.

/나주=김동철 기자 dongkk@

**지역신문을 보면
지역이 제대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을 제일 잘 아는건 '지역신문'입니다.
지역신문을 읽는 당신,
내 고향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문구독, 아는만큼 '힘'이 됩니다.

전남도민일보